효광원 2017년 통합 26호

한마루

효광원
www.hyokwang.or.kr

꿈을 키워가는 청소년이 있는 곳 – 효광원 한마루는 "남보다 훨씬 뛰어난, 걸출하다"는 순 우리말입니다.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3장 12절) • 사제 서품 성구로 선택하신 말씀으로 생에 모든 이에게 삶으로 보여주시고 권고 하신 말씀이다.

꿈과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곳!
여기는 효광원입니다!

HYOKWANG Protection and Treatment Facilities

Contents _ 목차

03 故 김영환(타데오) 신부님의 발자취를 기억하며

05 과장님 인사말씀

07 아동들의 글

11 프로그램 소개

12 효우리 이모저모

14 2016년 기획사업
– 2016 아동복지시설 아동 치료 · 재활 지원사업

15 효광원 활동 모습

19 따뜻한 손길, 아름다운 마음

한마루 Vol.26 | 발행처 · 보호치료시설 효광원 |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 1305번길 48(낭월동 399번지) | 전화 · 042)271–7053, 8483 | 팩스 · 042)271–5775 | 지도신부 · 김현 마태오 | 발행인 · 김정엽 | 편집 · 남광규 | e-mail · hkw7053@hanmail.net | 홈페이지 · www.hyokwang.or.kr | 디자인 · 인컴(042.624.3458)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첫미사 후 신자들과 함께

신부님
부모님과 함께

효광원 원장 취임식(전 엠마우스 성지)

사제서품

장례미사1

장례미사2

냉정한 어른들을 만나 안정감을 느끼지 못한 채 불안한 느낌을 들키고 싶지 않아 일탈이 시작 되었을지도 모르는 아이들이다. 이런 여러 이유들로 인해 골이 깊어져 사회와 사이가 나빠졌는지도 모르겠다.
타인에 대한 권리존중과 규칙을 지키는 방법,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고 자기 스스로 행동에 대해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이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사회와 가정이 그리고 학교와 교사가 약자를 배려하고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 10대 청춘들이 보고 배울 수 있은 기회를 주는 것이 교육이라고 믿는다.

대한민국의 기둥이 되고 미래가 될 소중한 아이들,
웃음꽃 피어나는 얼굴로 웅대한 꿈을 꾸어야 할 아이들

아동들에게 가르치고 경험시켜야 할 것은 지식보다도 가슴이다. 고통을 사랑할 줄 아는 열정과 극기라고 생각한다. 잔잔한 바다는 절대로 훌륭한 뱃사공을 만들 수 없다. 많이 넘어져 봐야 바로 서는 법을 안다.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에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라고 나를 다그친다.
새해 첫날을 맞이하며 뜨거운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다그친다. 25년의 시간 앞에 아이들에게 대한 열정이 묻어있는지 다그친다. 앞으로 25년 후 나와의 인연으로 이곳을 거쳐 간 아이들과 아니 그때는 성인이 되어 사회 곳곳에서 중요한 사람으로 삶에 충실하고 있을 아이들을 위해 오늘도 아이들의 미래를 응원한다.

과장 **최춘환**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전○재

안녕 효우리!
6개월이라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낸 전○재라고 합니다. 저도 이와 같이 6개월이라는 시간 정말 헛되게 보내려고 했고, 도망치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다 신입 때 3시간 거리인데 불구하고 저를 보기위해 버스를 타고오신 할머니 보니 정말 저는 후회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생활을 열심히 보다는 이왕 생활 하는거 의미 있게 보내자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늘 사회에선 놀고 먹고 즐기려고만 했는데 이곳 효광원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먹는 과정에서 아주 많은 트러블도 생기고 다툼도 있곤 했습니다. 중간 중간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려고 했지만 중간에서 선생님이 옆에 있어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저는 목표도 생기고 해보고 싶은 일도 생겼습니다. 늘 버팀목이 되어주신 선생님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밖에서 경험 해보지 못했던 것을 효광원에서 경험해 보았습니다. 국토순례, 공연 등 국토순례는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발에 물집이 생겼다가, 그 사이에 물집이 또 생기고, 다리는 붓고 그런데 그 것들을 다 참고 이겨내면 정말 쾌감을 느끼고, 재밌고, 자신감도 생기고 뿌듯합니다. 그 느낌은 직접 느껴봐야 알 것입니다. 공연은 약 2달동안 연습했습니다. 그 안에 싸우기도 했고 짜증도 나고 귀찮고 하기 싫었습니다. 다른 효우리들은 TV를 보면서 쉴 때 저희는 죽어라 연습했거든요. 연습하는 과정에서 춤을 몇 번이나 바꿔서 정말 힘들어서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친 저희를 달래주던 것이 간식이었습니다. 간식이 없었더라면 정말 힘들었겠지요.

하여튼 여러분들도 6개월 이라는 시간 허무하게 보내지 마시고, 하루하루 의미있게 허무하게 보내지 마시고 지위 이끄미까지 달성하시고 사회에 나가서도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진리 속에만 존재합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

효광원에서의 꿈을 위해 윤○후

안녕 효우리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윤○후라고 합니다. 우선 제가 이곳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작은 다툼으로 인해서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쉼터에서 생활하던 도중 거기서 만난 친구들과 경기도 부천에 갔습니다. 집을 나오니 배도 고프고하니 옳지 못한 행동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방황들로 인하여 어느순간 저는 경찰서와 법원을 들락 거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소년부 송치가 되어 저는 서울 분류심사원에 위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3주란 시간이 흐르고 7월 5일 이곳 효광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녁에 온지라 저는 멀뚱히 선생님이 하라는대로 서류를 작성하고 씻고 바로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고 아무것도 적응도 되지 않은 이곳에서 하루를 시작하니 온통 낯설기만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먼저 생활을 했던 형들이나 동생들의 도움으로 차츰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선생님들이 무섭고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할줄 알았지만 선생님들도 친절하고 사회와도 어느 정도 개방이 되었습니다. 차츰 익숙해지고 적응이 되니 문득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하게 되었고 검정고시를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은 미친짓이다, 나가서 보는게 낫을거 같다는등 구박을 해도 제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월이 되고 나서 두드림이란 프로그램을 하고 나니깐 더욱 제 목표와 꿈은 견고해 졌습니다. 목표는 이곳에서 검정고시와 자격증을 합격하는 것이고 보육교사란 꿈이 생겼습니다. 목표와 꿈이 생기니깐 계속 노력하게 되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꿈과 목표가 없는 것보다 꿈과 목표가 있는 것이 확연히 차이가 나더라고여, 그래서 6개월을 여기서 더 생활하기로 마음먹고 담임 선생님에게 연장을 시켜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여기서 무엇을 할수 있는지 계속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곳에서 제가 할수 있는 것은 공부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틈틈이 생각 나는대로 컴퓨터 자격증과 검정고시를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컴퓨터 자격증 테스트를 보면은 아직 시험볼 자격인 키트라인을 넘기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저에겐 6개월이란 시간이 남았기에 계속 도전하고 커트라인을 넘기고 정식시험을 볼수 있게끔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 꿈과 목표를 이룰수 있게 노력을 더 할것입니다.

이곳에서 지내면서 어느날 밤늦게 당직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더군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시간은 흘러간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에도 시간은 흘러간다고 매 순간을 소중히 하는 사람은 자신의 꿈에 한발더 다가갈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 선생님으로 인해 저는 많은걸 배울수 있었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진짜 꿈을 이룬다면 꼭 그 선생님을 닮고 싶습니다. 저에겐 담임 선생님 다음으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선생님 덕분에 꿈과 목표가 더욱 단단해 지고 이젠 목표랑 꿈만 이루면 되겠지요? 앞으로 전 더욱 노력할 것이고 계속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곳 효광원으로 인해 제 삶이 달라졌습니다. 꼭 이곳에서 저의 꿈과 목표를 이루겠습니다. 길고 지루한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효우리
이모저모

2016년 기획사업

사업명

2016 아동복지시설 아동 치료 · 재활 지원사업

사업목적

심리 · 정서 · 인지 · 행동상의 어려움이 있는 시설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치료 · 재활 프로그램 및 통합사례관리 개입을 통해 아동의 문제행동 개선하고, 더불어 아동의 원가족, 시설종사자 및 지역사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통해 아동복지 서비스 질 향상 및 아동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사업기간

2016. 5 ~ 2016. 12(약 8개월)

사업대상

전국 아동복지시설 아동 중, 심리 · 정서 · 인지 · 행동상의 문제행동 개선이 시급한 아동 500명(사전검사 종합 분석 결과 임상범위에 속하는 아동 선별)

대상아동

사전검사 결과 효광원 아동 2명 선정

효광원 활동모습

16. 08. 13 ~ 18 故 김영환 타데오 신부님 장례미사

16. 08. 23 담임선생님과 함께하는 프로그램(교사 이관호)

16. 08. 30 제18회 꿈나무축구대회 개회식 참가

9월

16. 09. 05 산내파출소 특강

16. 09. 07 권익위원회 방문

16. 09. 07 대전법원 음악감상가 되기 프로그램

16. 09. 21 ~ 23 숲체원 프로그램

효광원 활동모습

16. 11. 21 국정원 방문 안보교육

16. 12. 13 대전합창단 방문공연 2

16. 11. 22 천주교대전교구 사회사목국 김장 자원봉사

16. 12. 22 꿈나무 예술제(대전아동복지협회주관) – 난타공연

12월

16. 12. 03 12월 아동 생일파티

16. 12. 24 성탄 전야미사(강창원신부님 집전)

16. 12. 13 대전합창단 방문공연 1

16. 12. 28 - 30 삼성꿈장학지원재단 지원 주제가 있는 여행 프로그램

오시는 길

대중교통 이용 시(낭월차고지방향 "e편한세상 아파트"에서 내리면 됩니다)

- 대전역, 중앙시장 정류장 : 511번
- 대전역, 중앙시장 정류장 : 501번(마전 방향), 512번
- 대전 복합터미널 정류장 : 501번(마전방향)
- 서대전역(네거리) 정류장 : 33번, 513번
- 정부청사(남부)터미널 정류장 : 108번

자가 운행 시

- 남대전 톨게이트에서 대전역 방면 1.6Km 전방 오른쪽(방음벽 설치) 적벽돌 건물
- 오전면허 시험장에서 남대전 톨게이트 방면 1Km 전방 왼쪽(방음벽 설치) 적벽돌 건물

YOKWANG Protection and Treatment Facilities
보호치료시설 효광원

주 소 : 34704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 1305번길 48(낭월동 399번지) Tel : 042)271-7053, 8483 Fax : 042)271-5775
홈페이지 : www.hyokwang.or.kr E-mail : hkw7053@hanmail.net